

## 제123회 여름대공연 조명팀 인수인계서

팀장 61기 천유진

### 1. 조명팀에 대하여

제가 53회 신입생 워크샵에서 오퍼팀장을 맡았기에, 사실 하려는 말의 70%는 이미 53회 신입생 워크샵 오퍼팀 인수인계서에 있습니다. 이번 인수인계서에서는 그에 적힌 내용 외에 이번 공연을 통해 배웠던 점들을 위주로 기술할 예정입니다. 위 인수인계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53회 신입생 워크샵 인수인계서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을 포함해서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극회에서 올린 공연들이 모두 외부 극장 대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동아리에서 가지고 있는 조명들을 안 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이며, 아래의 제반조사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동하는 조명이 몇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저의 인수인계서를 보게 될 팀장님이 공연하실 때에는 학교 극장에서 공연을 올리게 될 것 같은데,, 학교 극장에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라인 변환을 하거나, 또는 램프를 새로 구매해 교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경험이 없습니다..ㅠㅠ 위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16회, 115회 등 이전의 인수인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여쭙볼 선배가 필요하시다면 아마 59기 이전의 선배님을 찾아서 여쭙야 할 것 같습니다.

### 2. 제반 조사 결과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울전 동방, 명륜 동방에 있는 조명 기기 및 장비들을 대상으로 제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두 페이지와 같습니다. 이번 공연 때 명륜 동방의 대파 4개와 엘립 2개, 젤라틴 등을 극장에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기에 관련 장비들의 위치는 다음 보고와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연하면서 가져간 대파가 1개 터졌기 때문에,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은 명륜의 엘립 2개, 대파 3개, 울전의 엘립 1개가 전부입니다. 보통 대파로 전체 조명 에어리어를 잡을 때 필요한 개수가 최소 10개 이상이며, 색조명을 쓰는 경우 개수가 추가되어야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동방에 있는 조명으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0개의 대파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동아리에 조명 장비를 빌리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길게 보았을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제대로 구매해서 조명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대파 램프 1개당 2.5 ~ 3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예산 책정 시 조명팀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함을 꼭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명륜 동방 제반 조사

장비 종류	개수 (작동 상태)	비고
엘립	2 (O)	
대파	4 (O) / 6 (△)	6 - 30A 플러그 없는 대파 + 새 대파 램프 1개
소파	5 (X) / 1 (△)	모두 110V 플러그로 연결되어 있음, 램프가 다 나간 것으로 확인.  1 - 연결선 없는 소파
릴선	1 (O)	47m
LED 충전구	1 (O)	
프레임	아주 넉넉함	대파, 소파 프레임 각각 매우 많이 있음
줄자	4	
가위	4	
절연 테이프	2	1개는 새 상품
케이블 타이	20개 내외	
젤라틴	빨강, 분홍, 진한 주황, 연한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보라	청록은 소파용만 있음



오른쪽 상자: 램프 있는 대파들  
윗 칸: 릴선 & 연결선 있는 소파들



검은색 상자: 조명 장비 모두 모아둠  
(에코백에 딸각이 & 110V -> 30A 변환선)  
선반 앞: 연결선 없는 소파 & 새 램프



젤라틴 색 종류

## 울전 동방 제반 조사

장비 종류	개수 (작동 상태)	비고
엘립	1 (O) / 1 (X)	되는 건 노란색 박스에, 안되는 건 맨 왼쪽 2층 박스에
대파 캔	15 + 10(1층 박스 안에)	
대파 램프	6 (X) / 7+ (△)	7개 이상은 모두 단자가 없어서 확인 불가 - Pic 1
프레임	대파, 소파 크기별로 많음	Pic 2
줄자	1	
30A 단자	7+	선 없이 단자만 있음 - Pic 3



Pic 1: 단자 없는 램프들



Pic 2: 프레임



Pic 3: 30A 단자



정리공간 1층 박스, 2층 박스



여기에 대부분 모아둠

### 3. 에어리어 잡기

123회 여름대공연의 경우, 러닝타임 약 120분에 조명 큐가 30개 내외로 암전이 거의 없고, 큐도 적은 공연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명 큐와 오퍼에 대해서는 크게 힘든 점이 없었지만, 에어리어를 잡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관한 극장의 특성상 대파가 많이 없고 퍼넬과 엘립이 많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나, 저 역시 에어리어를 제대로 잡은 것은 이번 공연이 처음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제대로 에어리어를 잡는 법을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경험하면서 느낀 약간의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어리어를 잡을 때는 무대 전체를 밝히는 전체 조명의 에어리어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대팀이 무대를 설치하기 전에 대강 예상되는 위치로 조명을 설치해두고 무대팀의 벽 설치가 완료된 이후나 사용되는 무대의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난 후 무대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에어리어를 잡기 시작해야 합니다. 비치는 그림자, 무대에 묻는 조명 에어리어를 직접 확인하면서 조정해야 하기에 무대가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번 극장과 같이 대파와 퍼넬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퍼넬과 대파의 조도 맞추기가 필수적입니다. 퍼넬은 빛을 퍼트려 쏘기 때문에 조도가 대파보다는 낮고, 대신 에어리어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파로만 에어리어를 맞출 때도 대파끼리도 조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조도가 되도록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명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우면 조도가 높을수록 무대 앞에서 빛 반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배우들의 얼굴, 흰 옷이 지나치게 빛난다거나.. 배우들이 소위 말하는 눈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대파의 조도를 낮추면 조명 색이 주황색, 노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서 조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에어리어를 잡을 때 무대의 바닥 전체에 조명이 묻도록, 무대의 양 옆 벽, 무대의 뒷 벽에도 모두 고루 조명이 묻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조명에 막혀서 생긴 그림자가 벽이나 바닥에 지면 안 되니 설치 시 위치나 방향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엘립을 제외하고 전체 조명을 잡는 대파로 에어리어를 잡을 때는 정방향으로 조명을 쏘아서 묻히기 보다는 사선 방향으로 쏘아주는 것이 조도 조절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사선 방향으로 쏘아주는 것이 조도 조절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기에 좋습니다. 조명의 고개나 위치, 방향이 완전히 대칭적이더라도, 조명 특성에 따라 해당 조명이 비추는 에어리어가 다를 수 있으니 조명을 켜 상태에서 에어리어를 보면서 에어리어가 대칭이 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무대 전체에 어느정도 고루 에어리어가 잡혔다면, 사람 한 명을 불러 무대 전체를 얼굴을 앞으로 두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하수에서 상수로, 상수에서 하수로 옆으로 가면서 얼굴색이 바뀌는 지점이 없도록 세밀하게 에어리어를 재조정해주고, 캐스트의 키에 맞추어 얼굴에 조명이 잘 묻도록 에어리어를 재조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에어리어 조정은 리허설 직전, 리허설 이후에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저는 에어리어를 공연이 되어서도 완벽하게 잘 잡지 못해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에어리어를 재조정하곤 했습니다..ㅎㅎ 에어리어 잡을 때에는 조명 콘솔을 조종할 인원 1명, 무대의 에어리어를 봐줄 1명, 사다리에 올라가서 조명을 조정할 1~2명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명을 올린 채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화상

및 감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꼭 목장갑을 낀 채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조명이 잡힌 이후에 핀 조명, 색 조명을 추가해서 설치하면 조명 설치 및 에어리어 잡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핀 조명의 경우 엘립을 쓰는데, 엘립의 에어리어 크기 혹은 모양은 엘립의 칼로 조절이 가능하니 4개 방향에 있는 칼들을 움직여보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색 조명은 동방에서 딸각이로 젤라틴 색을 확인하여 후보군을 꾸려간 후에 무대에서 다시 색을 비교하면서 최종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끝을 맺으며

이번 공연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자 어려웠던 부분이 에어리어 잡기라서 인수인계서의 내용이 에어리어 잡기로 채워졌는데 위에 담긴 저의 고민과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의 극장 환경이 좋지 못하고, 공연의 러닝 타임이 긴 이유로 막공이 다가올수록 공연 회차마다 조명이 한 두 개씩 터졌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전류가 흐르거나 과열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혹여 공연 기간 중에 조명이 터지더라도 다음 공연 시작 전에 재빠르게 여분의 조명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분의 조명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디머를 모두 내리고, 디머를 움직일 때 지나치게 빠르게 올리는 일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팀은 다른 팀의 3달 분량의 일이 특성상 공연기간 1주일에 대부분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대 설치 전에 꼼꼼하게 계획해서 설치하고 수정하는 것이 빠르게 일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힘든 점이 있기는 해도 매 공연 때 캐스트와 같이 호흡하는 느낌과 공연이 끝나고 뿌듯한 기분이 조명팀을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네요. 이번에도 두서없이 인수인계서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늘어놓았는데 재밌게,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 그리고 이번 공연 준비에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늘 조명에 신경 써 주시는 조영진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던 연출 이창기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안전 조명하세요~!